

K-유형유산, 비문(碑文)에 담긴 절기(節妓)의 삶

K-Intangible Heritage, The Epigraphic Traces of Kisaeng Life

윤은서*

조선시대 가장 비천하다고 하는 기녀(妓女)의 역사를 기록한 것은 최근의 일이다. 우리 역사에서 임진왜란 때 활약한 논개(論介), 계월향(桂月香) 등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이러한 기녀들의 활동은 조선 역사에서 이후에 중요한 인물로 취급되어 역사에 남게 된다. 춘천에서 이러한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는 인물은 ‘전계심(全桂心)’이다.

‘전계심’은 조선 정조(正祖) 때 인물이다. 후술하겠지만 그의 행적이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진 것은 일제 강점기였다. 그의 행적은 비석(碑石)으로 새겨져 현재 전해진다. 그를 만나는 길은 춘천 시내에서 멀지 않다.

춘천 번개시장 동쪽 입구에서 소양정으로 올라가는 길목에는 여러 비석이 한데 모여 있는 소양로 비석군을 볼 수 있다.

이 비석들은 본래 춘천 지역 곳곳에 흩어져 있던 것이었다. 그러나 도시 재개발 과정에서 비석의 훼손을 막고 체계적으로 보존하기 위한 이유 등으로 지금의 자리에 모이게 되었다.



〈사진 1〉 소양정 길목에 있는 비석군(사진 필자◎)

* 현재 강원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대학원에 재학 중이며, 고전 서사 전반 및 대중문화에 관심을 갖고 관련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dbsdmsjtj2003@naver.com

현재 총 26기의 비석이 있는데, 과거 춘천에 부임했던 수령들의 공적을 기리기 위해서 백성들이 세운(善政碑)이다. 참고로 이 비석 중에는 이승만 대통령을 기념하는 것도 있다. 이 비석들은 현재 춘천시 향토문화유산 제2호로 지정되어 역사적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이러한 비석을 지나 소양정(昭陽亭)으로 올라가다 보면, 계단 중간에 다른 비석들과는 달리 홀로 서 있는 비석을 발견할 수 있다. 이 비석의 앞면에는 ‘春妓桂心殉節之墳’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다. 이를 해석해 보면 ‘춘천 기녀 계심이 절개를 지켜 순절한 무덤’이라는 의미이다. 이처럼 묘(墓) 없이 비만 덩그러니 놓여 있는 ‘전계심’의 비석을 자세히 알아보기로 한다.

1. 전계심 비의 역사



〈사진 2〉 전계심 비의 모습(사진 필자©)

현재 전계심 비는 오랜 세월의 풍파로 인해 표면이 심하게 마모되고 부식되어 비문을 정확하게 판독하기 어렵다. 그리고 지금까지 비문을 탁본해 놓은 것도 없어, 비문의 자세한 내용을 알기가 어렵다.

하지만 근대시기에 간행된 『개벽』(1923년 12월 1일자, 제42호)에서 이러한 문제점을 깔끔하게 해결하고 있다. 『개벽』 42호에는 「영서팔군(嶺西八郡)과 영동사군(嶺東四郡)」이라는 제목의 강원도 명승지를 소개하는 글이 실려 있다.

여기에 전계심 비문의 전문이 처음으로 소개되었다. 이것을 소개한 사람은 언론인 차상찬(車相瓚)이다. 그는 ‘계심총(桂心塚): 읍서(邑西) 봉의산록(鳳儀山麓) 대로변(大路邊)에는 춘기계심순절지분(春

妓桂心殉節之墳)이라는 단갈(短碣)이 있다’라고 언급한 뒤에, 비문에 상세한 내용을 보여주고 있다.

節妓全姓桂心名
少乃母賤籍教坊

절기의 성은 전(全)이요 계심은 이름이라
어려서 천한 모친 때문에 기적에 올랐지만

www.kci.go.kr

簡潔之姿幽貞性
持身無異處閨房
十七于歸府吏家
與子成說許不更
退來自守粉黛中

不學他人嬌笑呈
尙方移屬被誰屬
收拾嫁衣入漢京
長安挾斜惡少多
料得行路遭暴強
裙帶秋蓮囊儲藥
鴻毛一擲矢自戕
臨別殷勤托所天
弱息猶關鐵冊腸

腹中有物添身屢
忍能割愛手墮傷
垢面毀容便自污
會須一死心深剛
月白人靜中元夜
從容飲毒如飴糖
傍人驚救已無急
奄奄僅辨酒聞聲
賣髻備樞屬後事
肥膚勿露收斂精
三度家書繫腰間
面面訣語哀其鳴
夫婿抱藁歸櫬里
一靈難掩夢感腸

간결한 자태에 조용하고 올곧은 성품으로
몸가짐이 규방의 여인과 다르지 않았다네.
열일곱에 고을 아전을 만나 시집갔는데
당신과 불경이부(不更二父)를 다짐하고서
물러나서 기녀들 틈에서도 몸을 지키고

남들처럼 교태와 웃음을 배우지 않았다네.
뉘 청탁인지 상의원으로 이속하라 하여
시집갈 때 입었던 옷 걸치고 한양에 갔는데
한양에는 나이 젊은 불한당이 많으니
길에서 폭행을 당할 줄 알기나 했으랴!
치마폭엔 은장도가 주머니엔 독약 있어
깃털처럼 한 목숨 던져 죽으리라 마음먹고
사별함에 은근하게 남편에게 남긴 말,
“철석간장도 자식에겐 마음이 끌리는 법.

뱃속에 무엇이 있어 배가 점차 불러오는데
내 손으로 팽개쳐 다치게 차마 할 수 없지만
때 끼고 못나도록 스스로 몸가짐 못했기에
만드시 한번 죽어야지 마음 굳게 먹습니다.”
달 밝고 인적 없는 칠월 보름밤에
조용히 엿을 먹듯 달게 독약을 마시니
결의 사람 놀라 구하려 해도 늦었는데
정신이 가물거려 겨우 들릴 말소리로,
“다리 팔아 널 장만하고 뒷일을 부탁하오,
고운 살갗 드러나지 않게 잘 염습하고
세 통 남편 주신 편지 허리에다 묶어주소.”
면면이 영결하니 울음소리가 애달프네.
남편이 명석에 말아 고향으로 돌아가니
그 넋이 떠나지 못해 꿈에 나타난 것이라.

玉碎珠沉等碧綠
 節義方之逾秋霜
 巡相李公聞其事
 錦水瓊娘雙表旌
 亟我伐石督棹楔
 工備辦給出上營
 新莅明府且捐奉
 墳前標立三尺盈
 春川孤客(三字未詳)
 掇取餘意述此銘

옥과 구슬 부서져도 푸른빛은 한가지라
 절의를 비하자면 가을 서리보다 더 맵다네.
 순찰사 이공께서 그 일을 들으시고
 금강의 경랑(瓊娘)과 한 쌍의 정려문이라
 내게 빗돌 구하고 정려의 재목을 재촉하곤
 공사비를 감영에서 마련해 보내주셨네.
 새로 부임한 사또 역시 봉록을 털어서
 무덤 앞에 딱 찬 세 자짜리 비를 세웠네.
 춘천의 외로운 객 [세 글자는 미상이
 남은 뜻 모아서 이렇게 명을 짓노라.¹

- 嘉慶元年丙辰五月日 錦城 朴宗正銘 文化 柳尙綸書
 가경(嘉慶) 원년(1796) 병진(丙辰) 5월(五月)
 금성(錦城) 박종정(朴宗正)이 명(銘)을 짓고
 문화(文化) 유상륜(柳尙綸)이 쓴다.

『개벽』에 수록된 내용을 통해 전계심의 사연을 재구성해 보면 다음과 같다.

전계심은 어머니가 기녀여서 그 역시 기녀 명부에 올랐지만, 스스로를 규수처럼 여기며 몸가짐을 단정히 하였다. 17세에 아전을 만나 시집가서 백년가약을 맺고 ‘열녀는 두 남편을 섬기지 않는다(烈女不更二夫)’는 약속을 하였다. 비록 여전히 신분은 기녀이었으나 교방에서 웃음과 교태를 파는 일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를 시기하거나 탐낸 누군가의 청탁으로 인해 전계심은 상의원(尙衣院)으로 이속되었다. 불행히도 한양에 있던 중 젊은 불한당에게 겁탈을 당하는 비극을 겪었다. 평소 절개를 지키기 위해 은장도와 독약을 품고 다녔던 그녀는 결국 7월 15일 독약을 먹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죽음에 임박하여 전계심은 뱃속의 아이에게 차마 못할 짓을 하면서까지 정절을 지키는 이유와 자신의 원통한 사정을 남편에게 전해 달라 유언하였다. 또한, 자신이 쓰던 다리를 팔아 장례를 치르고, 남편이 보내준 편지를 허리에 묶어달라는 애절한 부탁을 남겼다.

1 이종묵. (2019). 춘천 기생 계심(桂心)의 노래. 『문헌과 해석』, 84, 태학사. 66-67.

원통하게 죽은 그녀의 원혼은 남편의 꿈에 나타났고, 남편은 서울로 가 시신을 수습하여 춘천으로 돌아왔다. 남편의 청에 따라 강원도 관찰사는 금수(錦水)의 경랑(瓊娘)²과 함께 표창할 일이라며 정려문을 세우게 하였고, 이로써 1796년(정조 20년)에 비석이 세워졌다.³

그리하여 세워진 비석과 무덤은 춘천 소양강 길가, 구체적으로는 소양1교에서 후평동 방향 봉의산 기슭에 자리 잡고 있었다. 오랜 시간이 흐르고 도로가 확장되면서 무덤의 봉분은 사라지고 비석만 남게 되었으며 한국전쟁 중에는 총탄에 맞아 일부가 훼손되기도 했다. 이렇게 방치되어 있던 비석은 1998년에 이르러서야 현재의 춘천시 소양로 1가, 소양정 오르는 길목으로 옮겨져 보존되고 있다.

2. 기녀를 위해 세워진 비문(碑文)의 의미

전계심의 절개를 아무리 높이 평가한다고 해도, 당시 조선 사회에서 기녀를 위해 비석을 세우는 일은 결코 흔하거나 익숙한 사례는 아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는 말처럼, 비석은 보통 한 인물의 업적과 이름을 오래도록 후세에 전하기 위해 만들어진다. 이러한 비의 일반적인 목적을 고려할 때, 천민 신분인 기녀에게 비석을 세워준 배경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 것으로 짐작해볼 수 있다.

조선시대는 삼강오륜(三綱五倫)에 입각한 유교를 지배 이념으로 삼았다. 국가는 이러한 유교적 풍속을 백성들에게 널리 교화시키기 위해 노력했으며, 특히 충신·효자·열녀 등 사회적 모범이 되는 인물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표창하고 권장하였다.⁴ 비석이나 정려문을 세워주는 것은 이러한 교화 정책의 일환으로 봐야한다.

전계심의 경우도 이러한 국가적 교화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 실제로 1796년(정조 20년)에는 이병정(李秉貞)이 강원도 관찰사로 있었다. 이병정이 강원도 관찰사로 임명되었을 때, 정조는 그에게 특별한 윤음(綸音)을 내려 강원도의 문풍(文風)이 다소 미개하고 선비들의 습속(習俗) 또한 투박함을 지적하였다. 그러면서 특히 백성들을 예악(禮樂)과 문교(文教)로 대우하라고 당부하였다.⁵

2 금수(錦水)의 경랑(瓊娘)은 영월의 기녀 경춘(瓊春)을 가리킨다.

3 이종묵. (2019). 춘천 기생 계심(桂心)의 노래. 『문헌과 해석』, 84, 태학사. 66-69.

4 홍기표. (2017). 조선시대 제주 정려비 현황과 분석. 『제주도 연구』, 47, 제주학회. 3.

이러한 정조의 뜻을 받들어 이병정은 1795년 영월의 기녀 경춘의 비를 세우고, 이듬해인 1796년에는 춘천의 전계심 비를 세워 관찰사로서 백성들을 교화하려는 정치적 목적을 실현하였다. 비록 조선시대에서 기녀는 천한 신분이었지만, 이들의 뛰어난 절의를 기념하여 그 정신을 널리 알림으로써 일반 백성들에게 유교적 가치관을 고취시키려 한 것이다. 이는 신분을 초월하여 유교적 덕목을 실천한 인물이라면 누구든 표창의 대상이 될 수 있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명기 일화집』에 따르면, 조선시대 기녀 142명중 비석이 세워진 경우는 5명에 불과하다고 한다. 책에서 소개한 기녀 5명은 아래와 같다.

인물	지역	건립 주체
전계심(桂心)	춘천	강원 관찰사 이병정
경춘(瓊春)	영월	강원 관찰사 이병정
가련(可憐)	함흥	함경도 관찰사 박문수 (여러 버전이 존재)
연홍(燕紅)	가산(嘉山)	평안감사 원용
불관(不寬)	강계	강계절제사 우정의

3. K-유형유산으로의 활용

지금까지 기녀 전계심과 그녀의 행적을 기리는 비석에 담긴 이야기를 살펴보았다. 이 비석은 단순한 돌이 아니라, 유교적 덕목을 실천한 여성의 삶이 새겨진 귀중한 역사적 기록물이다. 비록 이 이야기는 역사의 큰 흐름과 지배층 남성 중심의 기록 속에서 잊혀지거나 잊혀지기 쉬운 수많은 이야기들 중 하나일 수 있으나, 이처럼 비석에 새겨져 후대에 전해짐으로써 우리는 잊혀지기 쉬운 기녀의 이야기를 들여다볼 수 있다. 결국 전계심비는 미천한 신분의, 잊혀진 기녀의 이야기가 어떻게 시대를 초월하는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로 작용한다.

이러한 기녀의 이야기말로 오늘날 K-컬처에서 주목해야 할 매력적인 원천 콘텐츠이다. 화려한 영웅담이나 거대한 역사적 사건, 혹은 사대부들의 고상한 이야기만이 전 세계인의

5 김정은. (2024). 강원도 절기(節妓)에 대한 기록과 기억: 영월의 경춘(瓊春)과 춘천의 전계심(全桂心)을 중심으로. 『어문연구』, 121, 어문연구학회. 97.

공감을 얻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전계심의 이야기처럼 비천한 신분 여성이 끝까지 지킨 절의와 유교적 덕목이 국경과 문화를 초월하여 깊은 울림을 줄 수 있다. 우리는 이러한 매력적인 서사들을 발굴하여 기녀라는 신분이 가진 독특한 배경과 결부시켜 드라마, 영화, 소설 등 다양한 형식의 K-콘텐츠로 재탄생시킬 필요가 있다. 이는 K-컬처의 지평을 넓히고 콘텐츠의 깊이를 더하는 작업이 될 것이다.

결국 전계심비와 같은, 기녀라는 신분과 여성이라는 이유 때문에 주목받지 못했던 수많은 역사 속 인물들의 이야기를 재조명하고 현대적인 감각으로 재해석하는 과정은 한국 문학의 힘을 증명하는 길이기도 하다. 문학은 단순히 글을 쓰는 행위를 넘어,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고 사회적 편견을 뛰어넘는 힘을 가지고 있다. 잊혀진 기녀들의 이야기에 새로운 숨결을 불어넣어 전 세계인과 공유할 때, 한국 문학은 더욱 강력한 문화적 영향력을 발휘하게 될 것이다. 전계심비는 그 무한한 가능성의 시작점에 서 있다.